

문학 전시의 내러티브와 지역성 구성 연구

〈이태준, 그리고 성북〉 전시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Narrative and Regional Composition of Literary Exhibition: Centering on the Exhibition 〈Lee Tae-jun, and Seongbuk〉

나윤지*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문학 전시에서 작가와 지역의 장소적·시대적 맥락을 구성한 전시 사례를 통해 지역 문학의 내러티브 가능성과 이를 통한 문학 전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2000년대 이후 지역의 대표 작가 혹은 지역 문학을 중심으로 문학관이 건립되고 있는 주요한 흐름상 문학 전시에서 작가와 지역의 맥락을 연결시키는 것은 문학 전시 연구에서 꼭 필요한 과제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태준, 그리고 성북〉 전시를 사례로 선정하여, 문학 전시에서 지역성을 어떻게 작가와 서사적으로 구성하고 전달했는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문학 전시에서 지역성과 내러티브의 관계를 의미화했으며, 전시 내러티브와 지역성의 연결과 확장을 한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문학 전시에서의 기획 방향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핵심어 이태준, 문학관, 문학 전시, 〈이태준, 그리고 성북〉 전시, 지역 문학, 전시 내러티브

- 차례**
1. 머리말
 2. 문학 전시에서 내러티브와 지역성 구성의 의미
 3. 작가와 지역 문학의 서사적 연결 모색과 전시 사례
 4. 맺음말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학관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 문학관의 운영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문이다. 흥미회는 문학관에 관한 연구성과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외 문학관의 문학콘텐츠 활용 사례를 조사·분석해 문학성을 기반으로 한 문학관이 그 기능을 점차 확장시켜 지역의 문학 거점이 되는 방안들을 제시한다.¹ 나윤지는 문학관 운영에 있어 그 역할이 퇴색되거나, 이용자와의 문학적 소통 문제, 문학공간의 장소성 약화 등을 한계로 지적하며 문학관에서 문학의 가치를 계승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² 김선기는 국내 문학관의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활성화를 위해 타당르와의 소통,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개발, 시설 활용 등의 방안을 모색하

1. 머리말

전시는 관람객에게 시각적 재현과 더불어 특정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다. 문학을 주제로 하는 전시는 작가의 생애 및 문학세계, 작품의 주제, 시대적·장소적 맥락 등을 재구성함으로써 관람객이 이를 시공간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성북근현대 문학관 기획전시 〈이태준, 그리고 성북〉을 사례로 문학 전시에서의 내러티브와 지역성 구성 방식이 어떻게 연계 될

* 성북근현대문학관 학에서

1 흥미회, 「문학콘텐츠를 활용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연구」, 목포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9.

2 나윤지, 「한국 근현대문학의 가치 계승을 위한 문학관 운영 방안 연구」, 고려대 문화유산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16.

고 있다.³

둘째, 지역 문학을 중심으로 로컬리티적 측면에서 연구한 논문이 있다. 박승희는 로컬리티적 측면에서 지역 문학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지역적 편협성에 빠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녔기에 지역 문학을 재구성하여 로컬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지역 문학관을 호출하였다.⁴ 문재원은 한 작가를 여러 지역의 문학관에서 재현하고 있는 양상에 대해 추적하며, 재현의 차이가 로컬리티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문화적 교류의 가능성 또한 제시한다.⁵

셋째, 문학 전시를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들이 있다. 문재원은 작가 중심 문학관의 전시 내러티브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문학-장소-지역-독자(관람객)의 관계망을 상호 교차하는 공간으로 의미화했다.⁶ 정은애는 기형도문학관의 상설 전시 내러티브를 분석해 작품의 모티브나, 작가의 특성을 관람자가 능동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플롯이나 구성의 배치가 있는 입체적 전시 방향을 제시한다.⁷ 이세인은 문학을 시각화하는 전시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나 문학작품 속에 형상화된 지역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지역 작가의 이상화 작업에만 몰두했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학 전시 방법론의 개발을 강조하였다.⁸ 이 밖에도 문학관에서 문학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⁹, 문학공간의 문화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논의¹⁰ 등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문학 전시’에서 ‘지역성’을 어떻게 ‘작가’와 서사적으로 구성하고 전달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 향후 문학 전시에서 지역성 구성에 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 대상인 <이태준, 그리고 성북>展은 이태준 탄생 120주년을 맞아 2024년 12월 6일부터 2025년 7월 20일까지 성북근현대문학관에서 개최한 기획전시이다. 이태준은 성북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다채로운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작품 속에 담아냈다. 더욱이 다양한 문화 예술인들과 교류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문예지들을 발간하여 지역 문학 형성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즉, 이태준의 삶과 작품세계는 성북이라는 지역과 긴밀하게 얽혀 있다. ‘이태준’, 그리고 ‘성북’에 관한 문학 전시가 특정 작가와 지역의 관계를 서사적으로 구조화해 의미화할 수 있는 전시 사례라 판단되어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문학 전시에서 내러티브와 지역성 구성의 의미를 살핀다. 그리고 3장에서는 작가와 지역 문학의 서사적 연결 모색의 전시 사례로 <이태준, 그리고 성북>展을 중심으로 전시 기획의도, 주제에 따른 공간배치, 구성요소 및 연출 매체(텍스트, 이미지, 지도, 영상 등)의 활용과 표현 요소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문학 전시가 관람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경험의 공유와 작가의 주제의식(메시지)을 전시 내러티브와 지역성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시사점을 도출해 향후 문학 전시에서 지역성을 구성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언한다.

3 김선기, 「문학관 운영의 실천적 방안에 관한 연구: 강진군시문학파기념관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용봉인문논총』 43, 전남대 인문학연구소, 2013.

4 박승희, 「로컬리티 문화 표상과 지역 문학관의 재구성: 대구문학관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72, 한민족어문학회, 2016.

5 문재원, 「지역문학관의 재현과 로컬리티」, 『인문과학연구』 36,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3.

6 문재원, 「문학관 전시 내러티브의 탈/구축: 확장 and 연결성」, 『열린정신인문학연구』 25, 원광대 인문학연구소, 2024.

7 정은애, 「기형도 문학관 전시 내러티브 분석과 상설 전시의 방향」, 경인교대 교육전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4.

8 이세인, 「박태원 문학 전시 연구: 「천변풍경」과 「구보의 구보」를 중심으로」,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5.

9 김예니, 「문화콘텐츠로서 문학관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제언: 작가 박경리와 작품 『토지』가 기념되는 방식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38, 돈암어문학회, 2020.

10 김찬호, 「문학공간의 문화콘텐츠화 연구: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2. 문학 전시에서 내러티브와 지역성 구성의 의미

2000년대에 들어오며 문학관의 건립이 급증하게 된다. 지자체들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해 관광 증진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학관 건립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에 연고가 있는 문인들을 문학관으로 배치해 로컬리티나 지역성과 깊은 관련을 맺게 했다. 하지만 이렇게 건립된 문학관의 전시는 작가의 연대기나 유물의 나열에 그치면서 정작 작가의 기념만 있고, 문학은 없다는 비판을 받게 했다. 더욱이 작가와 작품 그리고 지역성에 대한 유기적 관계를 제대로 연계하지 못하고 도식적으로 ‘고향’이라는 향토적 이미지만을 표상화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세인은 전시 기획자의 시의적절한 전시 주제와 대상 텍스트의 선정, 문자에서 전시 콘텐츠로의 시각화 과정을 거쳐 주제와 시공간의 완결성과 관람객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좋은 문학 전시가 구성된다고 보았다.¹¹ 이미지만 표상화되고 있는 지역 문학관의 문학 전시가 기존 전시의 틀을 벗어나 보다 주제와 시공간의 완결적이면서 관람객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문학 플랫폼이 되기 위해 전시의 내러티브와 지역성의 연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작가와 작품(유물)의 상호 관련성을 구조화하고 관람객들로 하여금 작가의 가치관, 작품의 주제의식 등의 내재적 의미와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전시 내러티브이기 때문이다. 내러티브(narrative)란 “정해진 시공간 내에서 인과 관계로 이어지는 허구 또는 실제 사건의 연속”¹²이라는 개념이다. 내러티브는 ‘서사’나 ‘이야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이나 영화에

서 현실과 허구의 사건을 하나의 시간에 연속성과 일관성을 갖도록 표현해 수신자들에게 제시되는 것을 말한다.¹³ 인물이나 사건 등의 맥락을 이야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적, 행동적, 상징적 행위라고 정리되기도 한다.¹⁴

전시 또한 유물(작품)과 관람객 상호 간에 연결되는 소통적 행위로서 전시 기획자에 의해 구조화된 맥락이 관람객에게 제시되는 이야기 전달 방식이라 내러티브라 할 수 있다.

전시 내러티브는 전시 공간에서의 맥락과 그 상호 관련성을 구조화하고 그 과정에서 내재된 의미와 다양한 이야기를 표현해 관람객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¹⁵ 이러한 과정이 지역성과 함께 구성된다면 정전화된 기존 문학 연구의 관점이 아닌 주변부의 관점까지 포괄하여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에너지의 추동을 이끌 수 있다.¹⁶ 마찬가지로 다양한 지역 주체들과 매개된다면 양방향적이고 다층적인 문화적 소통이 차이를 만들어 정전화된 문인의 표상에서 비껴나가 재생산될 수 있다.¹⁷ 따라서 작가와 작품(유물), 그리고 지역의 상호 관련성을 구조화해 작가의 가치관, 작품의 주제의식 등의 내재적 의미까지도 관람객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문학의 범위를 지역 출신의 문인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작품이나 지역에서 활동을 한 문인들까지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시키고¹⁸, 지역 문인의 행적과 작품 활동 등의 개별적 연구뿐만 아니라 문인들의 소

13 이승용·배성혁, 「역사계 박물관의 내러티브 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4(7),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9, 197~198쪽.

14 안금희, 「미술 교육에서 내러티브의 의의와 기능」, 『미술교육논총』 22(3), 한국미술교육학회, 2008, 22쪽.

15 안소민·김정명, 「아랍에미리트 국립 박물관의 전시 내러티브 비교연구: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국립 박물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 논총』, 한국중동학회, 2020, 126쪽.

16 김준현, 「문학 연구와 인식적 로컬리티, 그리고 지역 내러티브: ‘성북문학’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42, 돈암어문학회, 2022, 215쪽.

17 문재원, 「지역문학관의 재현과 로컬리티」, 『인문과학연구』 36,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3, 46쪽.

18 김준현, 「지역내러티브와 심상지리」, 『돈암어문학』 34, 돈암어문학회, 2018, 141~142쪽.

11 이세인, 「박태원 문학 전시 연구: 「천변풍경」과 「구보의 구보」를 중심으로」,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5, 29~30쪽.

12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https://dic.daum.net/index.do?dic=kor>

통과 교류까지도 규명하는 전시 내러티브가 지역 문학 연구보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며, 문학관의 '문학' 정체성도 강화시킬 수 있겠다.

3. 작가와 지역 문학의 서사적 연결 모색과 전시 사례

3.1. <이태준, 그리고 성북>展 기획 의도 및 전시 구성

문학관에서 작가를 전시하는 방법이 작가에 대한 기념에만 그치지 않도록 작가와 지역을 함께 보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였다. 작가·작품과 관련된 지역의 공간, 작품 주제와 관련된 유물·자료의 특성, 작가의 시대인식이나 지역을 형상화한 주제의식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연출 구성, 작가의 경험 공유를 통한 관람객의 재해석 가능성, 지역 문학의 확장 등을 고려하여 작가와 지역을 서사적으로 연결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성북근현대문학관에서는 탄생 120주년을 맞은 이태준을 중심으로 작가와 작품, 그리고 지역의 관계에 대해 주목했다. 해당 기획전시 <이태준, 그리고 성북>은 첫째, 지역 '성북'과 작가 '이태준'을 서사적으로 연결해 지역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문제의식을 주제화했다. 성북동이라는 장소기억, 작품 속 텍스트, 그리고 관련 이미지의 조합 등으로 작가·작품을 지역과 서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문학 지도를 활용해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시각화하고 주제화했다. 이를 단순한 시각 자료의 나열이 아닌 서사 전시의 한 형식으로 구현했다.

둘째, 공간과 시대적 맥락에서 만나는 작가의 서사와 이를 통한 지역 문학 범위의 확장이다. 성북에서만 만날 수 있는 1930년대 이태준의 서사와 교류, 그리고 관련 인물과의 소통 결과물까지 지역 문학의 다양한 콘텐츠 활용이 문학이라는 장르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

을 담고자 했다.

셋째, 문학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와 작품 관련 체험을 통해 현재의 관람객이 그 경험을 공유하고 재해석할 수 있도록 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고자 시도했다.

<이태준, 그리고 성북>展의 전시 공간 및 연출 구성을 살펴보면, 1부 도입부부터 '상허와 걷는 성북'으로 작품 속 성북 이야기를 시작해 전시 주제를 명확히 했고, 관람객의 흥미를 이끌고 작품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했다. 2부 '이태준의 길'에서는 작가의 연표와 자전적 소설의 삽화 그리고 유물을 배치해 이태준이 걸어온 삶의 여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3부 '이태준과 사람들'에서는 1930년대 성북동 문화와 이태준, 그리고 문예지를 중심으로 한 소통과 교류 등을 친필 편지, 사진 및 그림 자료, 유물과 더불어 신문 형태의 그래픽 연출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흥미롭게 전달하고자 했다. 4부 '이태준과 성북'에서는 성북 거주 시기 이태준의 집필활동과 수연산방에 대해서 알아보며 작가에게 성북동 시절의 일상과 집필의 의미를 일깨우고자 하였다. 5부 '우리 곁의 이태준'에서는 e-book과 애니메이션 영상 등을 활용하여 현재까지도 우리 곁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재해석되고 있는 이태준의 동화와 영화화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태준, 그리고 성북>展의 전시 공간 및 연출 구성은 <표 1>과 같다.

3.2. 작가 이태준과 성북 문학의 서사적 연결을 반영한 전시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1930년대 초 성북동은 김기진, 김안서, 김일엽, 이태준, 한용운, 홍효민 등 많은 예술가들이 거주하며 창작 활동을 했던 곳으로 문인촌으로 불리기도 했다.¹⁹

¹⁹ 동소문 밖 성북리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공기가 청정하기로 유명해 당시 도성 안의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한적한

〈표 1〉〈이태준, 그리고 성북〉展의 전시 공간 및 연출 구성

구분	제목	주요 내용	관련 유물	연출
1부	상허와 걷는 성북	- 상허 문학 속 성북 이야기 - 상허와 걷는 성북 문학 지도 - 일러스트와 만나는 상허의 성북 이야기	『달밤』, 『무서록』 등 2점	- 문학지도 - QR 작품 해제 - 일러스트북 제작, 작품(유물) 전시
2부	이태준의 길	- 이태준 연보	『문장강화』 등 11점	- 그래픽 연출, 작품(유물) 전시 - 「사상의 월야」 삽화 e-book
3부	이태준과 사람들	- 1930년대 성북동 문화와 이태준 - 문예지로 살피보는 이태준의 교류 - 이태준과 예술가들로 읽는 1930년대	『문장』 등 8점, 〈승설암도〉 등 이미지 4점, 『시와 소설』 등 복각과 영인본 5점, 친필 편지 1점	- 그래픽 연출 - 줄임앨범, 사진, 작품(유물) 등 전시
4부	이태준과 성북	- 성북에서 이태준의 집필활동 - 수연산방에서 이태준을 만나다	『둘다리』 등 15점, 『매일신보』 등 2점, 수연산방 등 이미지 7점	- 작품(유물) 전시 - 수연산방 서재 재현 - 필사 및 활동지 체험 - 촉음기 및 복각본 체험 - 수필 재구성 '무서록'
5부	우리 곁의 이태준	- 이태준의 동화 읽기: 동화 「엄마마중」 - 이태준의 영화 듣기: 영화 〈오몽녀〉	-	- 『엄마마중』 삽화 e-book - 〈오몽녀〉 일러스트 영상

이태준은 1933년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248번지에 정착했다. 본래 성북리는 도성의 북쪽에 해당되는 곳으로 혜화문 너머 성저십리의 동북쪽 일부에 해당해 인가가 드문 지역이었다. 1930년대 후반 경성 도심의 확장이라는 일본의 「대경성계획」에 따라 돈암 지구가 대규모 주거지로 개발이 추진되었으며²⁰, 성북동은 개발지의 인근 지역으로 도시화와 근대화의 물결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청량리와 더불어 근교의 전원지대로 유명해 다양한 사람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다.

김동섭은 「성북의 향기」에서 시골의 유유자적인 풍경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성북동에 묘새 없던 집이 들어서곤 해 양관(洋館)과 조선식 건물이 혼재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²¹ 이 밖에도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나눴던 낭만적인 공간으로 성북동에서의 추억을 묘사했던 이효석의 글²²이나 성북동의 변화에 대해 안타깝게 느끼는 문일평의

글²³ 등이 있다.

이러한 외부인의 시선과 달리 실제로 성북동에서 거주한 이태준은 작품 속에서 교외와 도심의 변모, 공간의 역사·문화적 재편, 그리고 그 속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북동이라는 장소를 통해 작품 속에 형상화하였다.²⁴ 그 과정에서 작가는 근대화와 도시화의 시류를 따라가지 못하고 낙오된 사람들이 성북동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섬세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있다. 더불어 이태준은 성북동에서 작가, 화가 등 많은 예술가들과 교류하면서

뻥 받았던 포도원에서의 일화(이효석, 「청포도의 사상」, 『조선일보』, 1936.9.29)나 '성북동의 가을-추억의 보금자리'(이효석, 「단상의 가을」, 『동아일보』, 1933.9.20) 등을 통해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나눴던 낭만적인 공간으로 성북동을 묘사했다.

²³ 문일평은 '물과 돌 좋은 곳의 맑은 공기'를 지닌 성북동이 자동차의 가솔린 냄새에 물드는 것에 탄식하고 있다(문일평, 「소하만필(17): 반나절의 추억조각을 회고하는 이야기」, 『조선일보』, 1936.8.25).

²⁴ 이태준과 성북동이라는 공간에 주목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선옥과 조형래의 연구가 있다. 김선옥은 이태준 작품 중 성북동이 등장하는 「달밤」, 「손거부」, 「색시」를 중심으로 성 '밖'과 '안'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로 근대화의 침투와 소외 양상을 분석하였다(김선옥, 「이태준, 김동리, 최정호 소설에 나타나는 성북동, 낙산 일대의 공간 연구」, 『한성어문학』 34, 한성대 한성어문학회, 2015). 조형래는 기존의 외부자적 시선으로 시골 같은 모습의 전원 지역에서만 간주되던 성북동을 바라본 다수의 글과는 달리 이태준 작품 중 성북동이 등장하는 단편소설과 수필을 중심으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유입되어 다양한 감각과 생활상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작가와 성북동을 의미화 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조형래, 「이태준의 성북동: 이태준의 단편소설 및 『무서록』에 나타난 '교외'와 '구석진 곳'의 의미에 대하여」, 『상허학보』 51, 상허학회, 2017).

근교에다 지형이 아름다워 예술을 벗 삼는 문인들이 많이 살아 일명 문인촌인 듯한 광경을 보인다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다. 「城北洞의 文人村」, 『삼천리』 5(10)호, 1933.10, 119쪽.

²⁰ 경성 인구의 급증으로 도시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주택난도 심각해졌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근대도시 계획법인 '조선시기계획령'을 수립하여 돈암지구를 포함한 10개 지역에 계획정리사업을 계획했다(성북근현대문화관, 「성북」 상설전시 도록, 성북근현대문화관, 2025, 29쪽).

²¹ 김동섭, 「성북의 향기」, 『동아일보』, 1930.3.27~4.6.

²² 이효석은 '누르게 물든 잔디 위에 배를 대고 누워 따끈한 석양을 들

1930년대 성북동 문화를 형성했기에 작가의 시선과 지역 문학의 교차점을 서사적으로 연결하고자 했다.

연구의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다음 절에서는 <이태준, 그리고 성북>展에서 작가와 지역 문학의 서사적 연결을 시도한 사례를 분석한다.

3.2.1. 작가가 형상화한 지역 이미지의 재구성 및 맥락의 시각화 시도

1부 ‘상허와 걷는 성북’은 성북이라는 공간이 작가와 작품에 미친 영향, 작가가 성북이라는 무대에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된 전시 공간이다. 작가와 작품, 그리고 성북과의 관계성에 대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자 전시 도입부에 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성북의 모습을 형상화한 <상허와 걷는 성북 문학 지도>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이태준의 작품 중 성북이 등장하는 작품을 선정했다. 소설 「달밤」, 「손거부」, 「장마」, 「토끼이야기」, 「색시」, 「박물장사 늙은이」, 『딸 삼형제』, 「빙점하의 우울」, 그리고 산문 「목수들」, 「성」, 「파초」, 「죽음」, 「옆집의 ‘냄새’ 업」, 「집 이야기」 등이다. 기본적으로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QR 형식을 통해 작품 해제를, 일러스트를 통해 관련 작품의 줄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작가가 성북을 다룬 작품 중 대표작이 있는 『달밤』, 『무서록』을 앞·뒷면 표지까지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표 2>와 같이 <상허와 걷는 성북 문학 지도>를 전시도

입부에 배치하여 ‘이태준, 그리고 성북’이라는 전시 주제를 부각시키는 한편, 앞으로 펼쳐질 작가와 지역의 관계성에 대해 호기심을 유도하고 1930년대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살았던 곳을 산책하는 듯한 대리 체험의 효과를 주었다. 벽면에 그래픽으로 성북동의 지도를 배치한 후, 이태준 작품 속 성북동의 주요 공간으로 작중 인물의 집(9곳), 작품 배경이 되는 곳(9곳), 성북동 예술가의 집(7곳) 등을 문학 지도에 표시하였다. 즉, 이태준의 문학작품에서 드러난 성북의 공간을 지도에 표시해 재구성한 것이다.

범례를 살펴보면, 첫째 이태준의 작품 속 성북동의 주요 공간 중 작중 인물의 집(9곳)을 지도에 표시했다. 단편 소설 「손거부」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로 도시빈민인 ‘손거부가 사는 토막집’, 성북동 토박이 ‘마진집’의 아이가 사는 집을 지도에 표시했다. 또한 삽화가 정현웅이 그린 ‘손거부’의 삽화를 같이 배치했다. 그리고 「옆집의 ‘냄새’ 업」에서 등장하는 ‘닭집 할머니 집’, ‘새로 지은 산집’, ‘냄새를 풍기는 ‘마메콩 튀기는 집’ 등을 지도에 표시했다. 「색시」에서 개울 건너 우리 집과 마주 띄는 집으로 색시가 몰래 훔쳐보는 ‘학생집’을 표시했다. 마찬가지로 화가 안석영이 그린 「색시」의 삽화를 같이 배치하였다. 그리고 성북동 일대에 새로 지어지기 시작한 양관식 가옥을 볼 수 있었던 「박물장사 늙은이」에서는 양관식 가옥의 주인이며 양복 신사의 여러 첩 중 하나인 아씨의 ‘파란 대문 하이칼라 집’을 양관식 가옥이 밀집된 지역에 표시했다. 「장마」에서 종로로 나가는 성북동과 혜화동의 길목에서 곱추 아내와 우

<표 2> 관련 전시 및 연출 사진



성북 문학 지도(전경)
(© 성북근현대박물관)



성북 문학 지도(세부)
(© 성북근현대박물관)



일러스트북 제작과 작품해설
(© 필자 촬영)

탁부락한 곰보 신랑이 화투를 치며 싸우는 ‘고갯마루 가게’를 표시했으며, 화가 김규택이 그린 「장마」의 삽화를 같이 배치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북동 사람들의 삶을 온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공간인 ‘수연산방’을 표시하고, 황수건과 이야기하는 작가의 모습이 담긴 「달밤」의 삽화를 같이 배치하였다. 이렇게 소설 속 삽화를 배치해 관람객에게 소설 속 인물에 대한 흥미를 일깨우면서 자연스럽게 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이태준의 작품 속 성북동의 주요 공간 중 작품 배경이 되는 공간(9곳)을 지도에 표시했다. 『딸 삼형제』 중 뒷마루에 걸터앉아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청룡암’을 현재 위치로 추적해 표시하며, 노수현 화백의 청룡암 삽화를 같이 배치하였다. 「손거부」에서 화자인 ‘나’가 미륵당 뒷산에 산보하러 갔다가 손 서방이 큰아들 대성이를 혼내는 모습을 목격했던 ‘미륵당’을 현재 동방대학교 위치로 추적해 표시했다. 또한 손거부가 아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여러 곳은일을 하다 채석장에서 손가락을 다쳤던 ‘채석장’의 위치를 찾아 표시하며, 성북동 채석장 관련 신문 기사를 찾아 같이 배치했다. 「달밤」의 황수건이 급사로 일했던 장소이며, 「손거부」에서 장남 대성이의 교육을 위해 보냈던 ‘삼산학교’를 성북동 삼산의숙 교사로 추정되는 위치에 당시의 사진을 찾아 같이 배치했다. 그리고 「달밤」에서 ‘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황수건이 포도를 훔쳤던 장소이며 작품의 마지막 장면 배경인 달밤 아래에서 황수건이 노래를 부르던 ‘포도원’ 위치를 찾아 표시했다. 1926년 성북동 포도밭의 신문 기사를 찾아 같이 배치하였다. 그리고 아침마다 포도원을 거쳐 쌍다리 앞쯤 오면 마음속으로 여기까지 버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일화가 있던 「장마」의 ‘쌍다리’, 그리고 출퇴근하며 ‘보성고보’를 지나가며 양관과 조선집이 섞이던 모습을 이야기하던 「집 이야기」 등의 작품 등을 소개하고 당시 ‘보성고보’의 사진 등을 같이 배치했다.

셋째, 이 전시의 한 축을 이루는 성북 문화예술인의 교류를 위해 성북동 예술가의 집 7곳을 선별해 표시했다. 주축이 되는 ‘수연산방’과 김용준의 집이자 이후, 김환기·김향안 부부가 살게 되는 ‘노시산방’, 출판사 백양당을 운영하던 배정국의 ‘승설암’, 『약산과 의열단』을 쓰고 배정국으로부터 받은 집터에 집을 짓고 산 ‘박태원 가옥(집터)’, 한용운의 ‘심우장’, 조지훈의 ‘방우산장’, 정지용의 시에 곡을 붙였던 작곡가 ‘채동선의 가옥’ 등을 관련 사진과 함께 배치했다. 이태준을 비롯한 이 시기 지식인들과 예술인들이 하나둘 성북동으로 거처를 옮겨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융합예술을 만들어 나갔던 지역적 의미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상허와 걷는 성북 문학 지도〉는 이태준의 문학작품에서 드러난 성북의 공간을 지도에 재구성함으로써 작가가 외부인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성북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는 것을 관람객이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성북동이 등장하는 작가의 작품 해제를 QR의 형태로 제공하고, 해당 작품의 줄거리를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일러스트북을 제작해 관람객에게 제공했다.

즉, 〈표 3〉과 같이 작가의 작품 속 장소를 선정하고 사진 및 삽화, 신문 자료 등을 작품의 텍스트와 배치한 문학 지도, 그리고 작품의 내용과 해설 매체를 제공해 관람객이 작품 속 지역의 이미지와 그 내용의 의미를 맥락화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데 기여했다.

〈표 3〉〈상허와 걷는 성북 문학 지도〉 세부 내용

구분	내용
이태준 작품 속 성북동의 주요 공간1: 작중인물의 집 (9곳)	<p>이태준 작품 속 성북동에는 근대화와 도시화에 밀려난 황수건과 손거부, 삼산 학교에 다니는 성북동 토박이 마전집의 아이, 고갯마루 가게의 곰보와 팍추 부부, 지주의 아들과 그의 첩 아씨, 그리고 소설가 '나' 등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부류의 인간 군상이 모여 살아가고 있는 공간으로 변모해가는 성북동의 모습을 볼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편소설 「손거부」: 손거부의 집, 마전집 아이의 집 · 단편소설 「장마」: 고갯마루 가게, 수연산방 · 단편소설 「색시」: 개울 건너 학생 집 · 단편소설 「박물장사 늙은이」: '아씨'가 사는 파란대문 하 이칼라 집 · 수필 「옆집의 '냄새' 업」: 닭집 할머니 집, 새로 지은 산집, 마메콩 튀기는 집
이태준 작품 속 성북동의 주요 공간2: 작품 배경이 되는 공간 (9곳)	<p>1930년대 경성의 확장 과정에서 성북의 돈암동은 중산층의 거주지로 각광을 받기도 했지만, 성북천 주변으로는 도시민민이 생활하기도 했다. 황수건이 포도를 훔친 '포도원', 급사로 일했던 '삼산 학교', '손거부의 집'(성북천 주변의 토막집)이 내려다보였던 '미륵당', 손거부가 아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일했던 '채석장' 등 작품 배경이 된 공간과 인물들의 일화를 통해 근대화·도시화에 영향을 받아 변하는 성북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편소설 「달밤」: 포도원, 삼산학교 등 · 단편소설 「손거부」: 미륵당, 채석장, 삼산학교, 마전터 · 단편소설 「장마」: 쌍다리, 보성교보 · 장편소설 『딸 삼형제』: 청룡암, 한양도성
성북동 예술가의 집 (7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연산방: 이태준이 살던 집으로 여러 편의 작품에서 등장 · 노시산방: 김용준의 집으로 이태준과 『문장』 창간에 일조 · 승설암: 배정국의 집으로 출판사 백양당을 운영하며 책 간행 · 박태원 가족: 백양당에서 인세 대신 받은 집터로 박태원 이 거주 · 심우장: 한용운의 집으로 『흑풍』 등 다수의 소설을 집필한 공간 · 방우산장: 조지훈의 집으로 자택에서의 일화가 시에 남아 있음 · 채동선 가족: 예술가와 성북 문인과의 교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음

3.2.2. 시공간적 맥락에서 살펴본 작가의 서사와 지역 문학의 범위 확장

이태준은 다양한 문화예술인들과 교류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한국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동인지와 문예지 등을 발간했다. 성북동 거주 시절에는 구인회에 참여하여 김기림·박태원·이상 등과 함께 동인지 『시와 소설』를 간행하였고, 김연만·정지용·이병기 등 휘문고보 시절의 인연과 길진섭·김용준 등 '성북동 수집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문예지 『문장』을 주관하며 '조

선적인 것'에 대한 미학을 확립해 나갔다.

1930년대 당시 성북동에는 이태준을 비롯하여 김용준·길진섭·배정국·손재형·함석태·김환기 등 도자기와 서화를 수집하고 감상하는 취미를 공유하는 '성북동 수집가 네트워크'²⁵가 형성되어 있었다. 고완품 완상을 매개로 한 문화예술인들과의 인연은 이태준뿐만 아니라 1930년대 성북동 문화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웃에 살던 고미술 애호가이며 사업가였던 배정국과의 교류는 배정국이 세운 출판사 〈백양당〉을 통한 『상허 문학독본』의 출간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박태원 『약산과의열단』의 출간으로도 이어져 배정국이 인세 대신 내준 인근 집터에 박태원이 집을 짓고 거주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공간적 맥락에서 살펴본 작가의 서사와 지역 문학의 내러티브를 연계해 〈표 4〉와 같이 확장 가능성을 모색했다. 첫째 '이태준과 사람들' 코너에서는 1930년대 이태준과 문화예술인들의 인연에서 비롯된 문예지, 작품, 그림 〈승설암도〉, 도자기 이미지 등을 함께 전시하며 교류의 중심이었던 당시의 성북동 문화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더불어 〈이태준과 예술가들〉로 읽는 1930년대 코너에서는 1930년대 신문에 소개된 이태준과 관련된 이야기²⁶, 1930년대 예술가들의 창작²⁷ 및 교류 활동²⁸ 등 당시의 시대상을 느낄 수 있는 내용들에 해설을 덧붙여 구성하였다.

둘째, 문학 전시의 내러티브를 작가-지역과 연결하기 위해 장르의 범위를 확장했다. 문학은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로의 확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태준의 단편소

25 야나가와 요스케, 「이태준과 도자기: 일본어 수필 「파편적인 이야기」와 성북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51, 상허학회, 2017, 208쪽.
 26 '비속한 물건을 가지고 실제성을 왜곡함이 없이 예술화할 줄 아는 희소한 조선작가의 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이태준의 기사를 소개했다(「현대 조선문학의 단편적 모색」, 『조선일보』, 1937.2.27).
 27 이태준이 참여한 예술가들의 출판기념회, 영화 대본 회의 등이 실린 신문 내용을 소개했다(「정지용시집 출판기념회 회합」, 『동아일보』, 1935.12.07; 「춘원 이광수의 무정을 영화화」, 『조선일보』, 1938.3.15).
 28 이태준이 참여한 동인지와 문예지 활동에 관한 신문 내용을 소개하며 1930년대의 문단 현실을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소식-구인회 창립」, 『조선일보』, 1933.8.30; 「문장 추천작품 모집」, 『조선일보』, 1938.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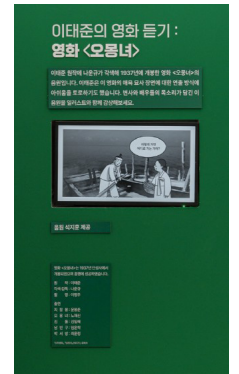
〈표 4〉 관련 전시 및 연출 사진



이태준과 예술가들로 읽는 1930년대(전경)
(© 성북근현대박물관)



1930년대 성북동 문화와 이태준의 교류
(© 필자촬영)



이태준의 영화 듣기: 오몽녀
(© 성북근현대박물관)

설 「오몽녀」는 나운규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어 흥행에 성공했다. 전시 5부에서는 <이태준의 영화 듣기: 오몽녀> 코너를 마련했다. 이태준 원작에 나운규가 각색해 1937년에 개봉한 영화 <오몽녀>의 음원을 통해 번사와 배우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음원에 덧붙여 해당 줄거리의 일러스트 영상을 제작해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연출하여, 한국 근대 소설사에서 개성적인 여성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나운규의 각색으로 이 영화의 애육 묘사 장면에 대한 연출 방식에 아쉬움을 토로한 이태준의 일화도 소개했다. 성북동에서의 이태준과 나운규의 만남, 그 결과로 만들어진 이 영화를 사례로 작가에서 지역의 문화예술로 내러티브가 연결되고 있으며 그 범위와 장르까지도 확장되어 나간다는 주제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3.2.3. 작가의 삶과 문학세계-관람자의 경험과 해석 가능성을 위한 체험 구현

이태준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고학생 생활을 하다 결혼 후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성북동으로 이사한다. 1933년 성북동으로 이사 온 이태준은 1946년 월북하기 전까지 왕성한 문학 활동을 전개하였다. ‘시에는 지용, 소설에는 태준’이라는 말처럼 완성도 높은 단편소설 대다수를 성북동 거주 시기에 창작하였다.²⁹ 따라서 <이

태준, 그리고 성북> 전시에서는 물리적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작가의 삶과 문학세계를 최대한 밀도 있게 보여주기 위해 관람객이 작가의 경험을 공유하며 해석할 수 있도록 e-book을 제작하고 축음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매체를 구현해 활용하였다.

첫째, 상허 문학의 산실인 수연산방을 재현한 공간에서는 이태준의 집필활동 및 일상생활을 체험해 보며 그의 삶과 문학, 그리고 성북에서의 일상을 관람객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선 1930년경 이태준이 수연산방에서 거주하며 즐겨 들었던 클래식 음악을 당시 유행했던 축음기를 통해 관람객이 직접 돌려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작가에 대한 감각적인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연출하였다. 그리고 작가의 수필 내용을 재구성해 성북에서 쓴 일기 형식의 소재작 ‘무서록’을 제작했다. 이 일기 형식의 책자에는 성북에서 거주하며 작가가 느꼈던 글쓰기에 대한 생각, 일화, 친구의 추도회에서 느꼈을 소회, 지난날의 회상, 작가가 느낀 성북동의 봄, 도시화의 물결에 놓인 성북동에 대한 안타까움, 작품 창작 배경 등을 담았다. 창작자로서의 고민과 성북에서의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관람객에게 작가의 마음을 엿보는 은밀함과 일상생활에서의 친밀한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관람객과

29 성북동에서 거주할 당시 이태준은 『달밤』, 『복덕방』, 『둘다리』 등 6권의 단편집과 『화관』, 『황진이』, 『왕자호동』 등 11권의 장편소설 등을 출간했

다. 빼어난 인물 묘사와 치밀한 문장은 이태준을 한국 단편소설의 완성자로 불리게 하였다(성북근현대박물관, 『이태준, 그리고 성북』 기획전시 도록, 성북근현대박물관, 2025, 10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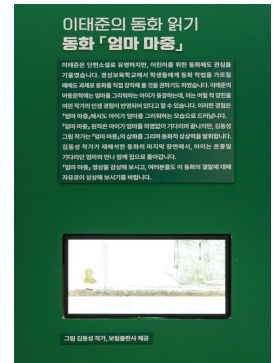
〈표 5〉 관련 전시 및 연출 사진



「사상의 월야」 삽화 e-book
(© 성북근현대박물관)



서재 재현: 작가의 일기 구성과 축음기·필사 체험 등
(© 성북근현대박물관)



「엄마마중」 삽화 e-book
(© 성북근현대박물관)

의 상호작용 후 작품 필사 및 작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길 수 있는 체험을 배치하였다.

둘째, 작가의 삶과 문학세계를 관람객이 교감할 수 있도록 삽화 등을 e-book으로 구현하였다. 삽화는 잡지, 신문 등에서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되는 인물, 정경 등을 묘사하여 글 속에 삽입하는 그림을 말한다.³⁰ 삽화는 소설을 반영한 ‘메타 텍스트’로서 소설과 상호텍스트성을 구축하여, 장면의 극적 재현과 현실 세계의 참조를 통해 사실감 있는 연출³¹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2부 ‘이태준의 길’ 연보 시작 하단에 게시대를 설치하여 작가의 자전적 소설인 「사상의 월야」 삽화³²를 연결해 e-book을 구성했다. e-book이나 키오스크 등은 물리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주제를 부각시키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³³ 따라서 자전적 소설의 삽화를 통해 투사되는 작중 인물의 내면을 발견하고 관람객의 공감을 통해 작가의 삶을 환기할 수 있도록 체험 매체인 「사상의 월야」 삽화 e-book 제작한 것이다.

또한, 작가의 문학세계에서 빠질 수 없는 ‘고아 의식’³⁴을 설명하기 위해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작품인 동화 「엄마 마중」³⁵의 삽화를 중심으로 e-book을 구성했다. 이 작품은 5부 ‘우리 곁의 이태준’의 〈이태준의 동화 읽기〉 코너로 만들어졌다. 원작 「엄마 마중」은 아이가 엄마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끝나지만, 현대판 김동성 그림작가의 「엄마 마중」 삽화는 아이가 기다리던 엄마를 만나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이처럼 다른 결말의 삽화를 e-book으로 만들어 관람객이 동화적 상상력을 발휘해 결말에 대해 자유로이 상상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더욱이 관람객이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토대로 동화의 마지막을 써보는 체험 활동지를 연계해 공감과 상상력을 자극하였다. 이는 작품에 드러난 보편적 감정을 현재와의 연결점으로 삼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3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참조(<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6978>).

31 공성수,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소설 삽화』, 소명출판, 2020, 5쪽.

32 「사상의 월야」는 1941년 3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다. 자전적 소설로 주인공 이승빈의 모습에서 작가 이태준의 과거가 상당 부분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소설에서는 함경도 배기미-철원 용담-원산-안동-경성-도쿄 순으로 공간적 이동이 나타난다. 신문 연재본에서 윤희순 화백이 삽화를 그렸다(성북근현대박물관, 앞의 도록, 111쪽).

33 안재현, 「문학 전시에서의 디지털 융합 콘텐츠 연구: 『아시아의 표해록』 전시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3(2), 인문사회21, 2022, 372쪽.

34 이태준의 아동문학 특징으로 ‘고아 의식’이 거론된다. 작가의 전기적 사실이 아동문학 창작에 반영되었으며 『나의 고아시대』(1932), 『내게는 왜 어머니가 없나?』(1933) 등에서도 고아 시절을 회상한 글이 확인된다(아나가와 요스케, 『이순옥·아동문학·개성(開城): 1930년대 이태준의 삶과 그 주변』, 『상허학보』 54집, 상허학회, 2018, 300쪽).

35 동화 「엄마 마중」은 1933년 12월에 잡지 『어린이』에 발표되었으며, 1938년 『조선아동문학집』에 재수록되었다. 겨울날 어린아이가 전차 정류장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풍경을 보여주지만 엄마를 끝내 만나지 못하고 서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4. 맺음말

이태준은 일본의 식민정책에 대한 비판을 직설적인 화법 대신 성북동의 못난이 인물을 작품에 등장시켜 암울한 실상을 온정 어린 눈길로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바보 같 으면서도 우스꽝스러운 ‘황수건’과 ‘손거부’ 등 작중 인물 들을 왜 ‘성북동’이라는 무대에 올려둔 것일까? 경성 확장 과정에서 시골 정취가 있던 성북동에도 중산층 주택이 들 어서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도시빈민이 이곳에서의 생 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만큼 성북동은 식민지적 근대화 의 모순된 양상을 보이며 여러 사람의 삶이 교차하고 공존 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태준 작품 속 배경 공간이 되었 다고 본다.

성북 지역의 문학을 보여주는 공간인 성북근현대문학 관에서 기획한〈이태준, 그리고 성북〉전시는 문학 전시의 내러티브와 지역성을 구성한 사례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 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문학 지도와 해설 매체 를 통해 작가가 형상화한 지역 이미지를 재구성하고 관람 객이 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둘째, 교류와 예술융합 등의 사례를 통해 시공간적 맥락에서 살펴본 작 가의 서사와 지역 문학의 범위를 확장한 가능성을 모색했 다는 점이다. 셋째, 체험 매체를 구현해 작가의 삶과 문학 세계에 관람객의 경험이 상호작용하여 문학적 상상력과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이끌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작가의 작품과 그 속에 등장하는 지역의 장 소적·시대적 맥락을 함께 이야기하며〈이태준, 그리고 성 북〉전시의 서사와 지역성 구성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문학 전시가 문학자료의 시각적 재현에 그치지 않고 문학 전시의 공간 구성, 전시 매체의 활용과 표현 요 소 등을 분석해 문학 전시의 내러티브 전개 과정과 의도된 주제나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 등 지역성과의 상관관계에 서 파악했다는 점에 가치가 있다. 더욱이 그 연결과 확장 가능성을 모색해 문학 전시 기획에 실천적 방향을 제시했

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사례는 작가 중심 전시에 국한되어 있어 테마·장르 중심의 문학 전시에 적용되기에는 한계 가 있다. 앞으로 문학 전시 내러티브와 지역성을 유기적으 로 연결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빙 등 지역-문학 연구 의 확장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지역의 역사·문화적 맥락과 연계한 문학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기획해 그 의미를 더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삽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6978>

1. 기본 자료

『동아일보』

『삼천리』, 제5권 제10호, 1933.10.

『조선일보』

2. 단행본 및 논문

공성수,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소설 삽화』, 소명출판, 2020.

김선기, 「문학관 운영의 실천적 방안에 관한 연구: 강진군시문학파기념관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용봉인문논총』 43, 전남대인문학연구소, 2013.

김선옥, 「이태준, 김동리, 최정희 소설에 나타나는 성북동, 낙산 일대의 공간 연구」, 『한성어문학』 34, 한성대한성어문학회, 2015.

김예니, 「문화콘텐츠로서 문학관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제언: 작가박경리와 작품『토지』가 기념되는 방식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38, 돈암어문학회, 2020.

김준현, 「지역내러티브와 상상지리」, 『돈암어문학』 34, 돈암어문학회, 2018.

_____, 「문학 연구와 인식적 로컬리티, 그리고 지역 내러티브: '성북문학'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42, 돈암어문학회, 2022.

김찬호, 「문학공간의 문화콘텐츠화 연구: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나윤지, 「한국 근현대문학의 가치 계승을 위한 문학관 운영 방안 연구」, 고려대 문화유산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16.

문재원, 「지역문학관의 재현과 로컬리티」, 『인문과학연구』 36, 강원대인문과학연구소, 2013.

_____, 「문학관 전시 내러티브의 탈/구축: 확장과 연결성」, 『열린정신인문학연구』 25,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4.

박승희, 「로컬리티 문화 표상과 지역 문학관의 재구성: 대구문학관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72, 한민족어문학회, 2016.

안금희, 「미술 교육에서 내러티브의 의의와 기능」, 『미술교육논총』 22(3), 한국미술교육학회, 2008.

안소민·김정명, 「아랍에미리트 국립 박물관의 전시 내러티브 비교연구: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국립 박물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41(2), 한국중동학회, 2020.

안재현, 「문학 전시에서의 디지털 융복합 콘텐츠 연구: 『아시아의 표해록』 전시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3(2), 인문사회21, 2022.

야나가와 요스케, 「이태준과 도자기: 일본어 수필 「파편적인 이야기」와 성북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51, 상허학회, 2017.

_____, 「이순옥·아동문학·개성(開城): 1930년대 이태준의 삶과 그 주변」, 『상허학보』 54, 상허학회, 2018.

이세인, 「박태원 문학 전시 연구: 「천변풍경」과 「구보의 구보」를 중심으로」,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5.

이승용·배성혁, 「역사계 박물관의 내러티브 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4(7),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9.

정은애, 「기형도 문학관 전시 내러티브 분석과 상설 전시의 방향」, 경인교대 교육전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4.

조형래, 「이태준의 성북동: 이태준의 단편소설 및 『무서록』에 나타난 「교외」와 「구석진 곳」의 의미에 대하여」, 『상허학보』 51, 상허학회, 2017.

홍미희, 「문학콘텐츠를 활용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연구」, 목포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9.

3. 기타 자료

네이버국어사전

성북근현대문학관, 『이태준, 그리고 성북』 기획전시 도록, 성북근현대문학관, 2025.

_____, 『성북』 상설전시 도록, 성북근현대문학관, 2025.

Abstract**Study on the Narrative and Regional Composition of
Literary Exhibition**

Centering on the Exhibition <Lee Tae-jun, and Seongbuk>

Na, Yun-Ji | The Museum of Seongbuk Modern Literature

This study examines how literary exhibitions can narratively construct and communicate locality through the contextualization of an author's life, historical moment, and regional setting. As literary museums in Korea have increasingly been established around prominent local authors and regional literary traditions since the 2000s,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s, place, and time has become a central issue in exhibition studies. Focusing on the exhibition Lee Tae-jun and Seongbuk, this study investigates how locality is shaped as an interpretive and narrative framework around the author. It first considers the conceptual relationship between locality and narrative in literary exhibitions, and then analyzes how the exhibition connects the author's biography, literary world, and regional context to expand the meaning of locality. On this basis, the study identifi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future curatorial strategies and demonstrates the narrative potential of literary exhibitions as a medium for reinterpreting local literature.

Keywords Lee Tae-jun, Literature Museum, Literature Exhibition, <Lee Tae-jun, and Seongbuk> Exhibition, Local Literature, Exhibition Narrative
